

팔순의 단색화 거장 “가만히 멈춰있기 싫다”

February 17, 2022 | 고승희 기자

Page 1 of 1

팔순의 단색화 거장 “가만히 멈춰있기 싫다”

추상미술 대가 '하중현 화백'

나무 합판을 얇은 직선 형태로 자른다. 사람의 손이 하는 일이기라 나무 조각의 길이도 굵기도 조금씩 다르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은 나무토막은 미세한 오자 덕에 생동감이 더해졌다. 가느다란 각목 형태로 잘린 조각들은 이제 색다른 웃을 얻는다. 막이나 물감으로 칠한 컨버스 천으로 하나씩 감싸는 것에서 거장의 노동 집약적 작업은 시작된다. 나무조각의 가장자리로 유화 물감을 짜내 바르고, 화면 안으로 하나씩 배열한다. 조각 사이로 물감이 흘러 나와 은은한 빛깔을 띤다. 하중현(87) 화백이 70대에 접어들어 새롭게 시작한 작업이후 '접합'이다.

“평생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어요. 내 나이에 붓을 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세상을 떠났고. 아직까지 작품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는 것은 뭔가 새로운 일을 열심히 해보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선구자'로 불린다. '단색화의 선구자'이자, 추상미술의 대가. 전형적이기도, 정형화되기도 않은 '아방가르드'의 상징이기도 그의 작품 세계는 유일무이하다. 아흔을 앞두고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탐구한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하중현 화백의 개인전(3월 13일까지)에선 그가 평생을 탐구하며 진화해온 '접합(Conjunction)' 작업이 망라됐다. 가장 최근 연작인 '이후 접합(Post-Conjunction)' 신작을 포함해 총 39점이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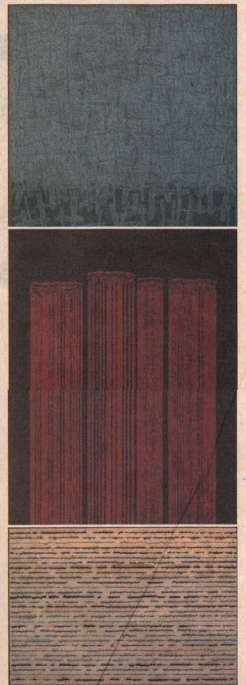
최근 국제갤러리에서 만난 하중현 화백은 '이후 접합'은 2010년대에 접어들 때쯤 이제는 또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저는 사실 이 작품들을 꼭 보면 시가다. 들면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기 싫어요. 그 결과라고 봐요.”

천년 작가의 삶은 도전과 실험의 연속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20대의 하중현은 즉흥적 행위와 표현을 강조한 앵포르멜(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회화운동) 작업으로 화단에 등장했다. 1965년 파리 비엔날레에 '부적 A, B'를 출품하자, 작품은 전경의 상흔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을 들었다. 갈색과 회색이 어두운 물감을 두텁게 채색한 특이 때문이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 하중현 화백이 구축한 독자적인 예술 세계가 시작된다. 1974년부터 시작된 '접합' 연작이다. '접합'은 일종의 '물감 밀어내기' 기법이다. 전 세계 미술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독창적인 방식이다. 하 화백은 도화지가 아닌 종이 위에 마테를 자성해 작업했다. '접합' 작업은 마테 뒷면에 두터운 물감을 바른 뒤 필레를 사용해 물감을 앞으로 밀어내는 배압법(背押法)을 고안하며 시작. 그의 시그니처가 됐다.

“6·25 전쟁이 끝나고 서울에 와 미술 공부를 하느라 캔버스나 물감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랩트 재질의 천을 사다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마테를 가져다 북북 털어내 써보기도 했어요. 캔버스를 대신할 것을 찾은 거죠. 이층섬유가 달빛갈 종이에 은지화(銀紙)를 그렸던 것처럼 나뭇잎을 쓴 거예요. 그런데 마테에는 구멍이 뚫려 물이 스며들기 쉽지가 않아요. 안쪽에 뒤편에 물감을 바르니 (구멍이) 뚫어



하중현 화백은 '단색화의 선구자'이자, 추상미술의 대가로 불린다. 전형적이기도, 정형화되기도 않은 '아방가르드'의 상징이기도 그의 작품 세계는 유일무이하다. 아흔을 앞두고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탐구한다. 작품 위부터 '접합 99-03/Conjunction 99-03, 2021, Oil on hemp cloth, 130 x 97 cm, '접합 2-5/Conjunction 2-5', 2021, Oil on hemp cloth, 117 x 91 cm, '이후 접합 11-3/Post-Conjunction 11-3', 2011, Mixed media, 120 x 180 cm.



하중현 화백은 '단색화의 선구자'이자, 추상미술의 대가로 불린다. 전형적이기도, 정형화되기도 않은 '아방가르드'의 상징이기도 그의 작품 세계는 유일무이하다. 아흔을 앞두고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탐구한다. 작품 위부터 '접합 99-03/Conjunction 99-03, 2021, Oil on hemp cloth, 130 x 97 cm, '접합 2-5/Conjunction 2-5', 2021, Oil on hemp cloth, 117 x 91 cm, '이후 접합 11-3/Post-Conjunction 11-3', 2011, Mixed media, 120 x 180 cm.

**접합-다채색 접합-이후 접합으로 진화
생경한 소재, 기법 전세계 유수화랑 열망
2007년부터 다채색 작업에 새롭게 몰두**

**안 팔릴까 걱정하던 작품 불꽃이 팔려나
내 바람? 작품 한 곳에 모아 전시하고**

지더라도. 커서 철폐 앞으로 밀어붙이는 작업은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전혀 '미술적'이지 않은 재료인 마포로 구현한 '물감 밀어내기' 기법은 당시는 물론 지금도 '파격적인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고정관념을 깬 작품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종 굵은 것도 있고, 꼬부라진 것도 있고 마테의 형태에 따라 밀어낸 물감이 뽀족해줄 달라도. 사람의 얼굴이 모두 다른 것처럼 마테를 놓고 나오는 물감의 형태도 제각각이에요. 저마다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두는 그대로의 얼굴을 작품에 담고 싶었어요.”

그는 지난 시간을 '마테와 물감과의 전쟁'이었고 '다정한 형태', 그것이 만들어진 '재료'와 기법이 생경하고 새로웠던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이 한국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봐요. 마테 뒤에 물감을 밀어 밀어내면, 물감과 물감이 만나 하나의 작품이 나와요. 앞으로 나온

걸 또 한 번 밀고, 다시 중심으로 가면서 작업을 발전시켜요. 그렇게 나만의 캔버스를 만들고, 나만의 이면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자연히 나의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접합'은 지난 50년간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했다. 세계적 명성을 얻고, 거장이자 청송 반이도 하 화백은 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 접합에서 시작해 '다채색 접합', '이후 접합'으로 진화하고, 단색에서 다색으로 확장했다.

기왓장이나 벽지를 연상시키는 무채색의 '한국적 색상'을 사용해 '단색화 선구자'로 불리던 그는 작품에 반주된 색을 입혔다. 하 화백이 작품에 다채색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하 화백의 '다채색'은 '한 작품에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 있는 다채색이 아닌 밝은 흰 색이나 이상적인 색을 사용한 색채 작업'(국제갤러리 윤희정 이사를 말한다).

화단에선 “오랜 시간 본인의 작업을 정내내 단색화라는 틀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자 한 열린 시도"라고 평가한다. 다채색 연작에선 마포 표면을 검은색 물감으로 칠한 뒤 뒷면에 흰색 물감을 바르고 밀어낸다. 그러면 마포 앞면엔 보슬보슬한 물방울처럼 흰색 물감이 맺혀 산비림과 아름다운 색조가 나타

난다. 그 위로 흰색 물감을 윤리다 다시 또 다른 색의 물감을 칠해 다양한 레이어와 색채가 어우러지게 했다.

“후기 '접합'이라는 뜻에서 '이후 접합'으로 이름 붙인 작업들은 기존의 '접합' 연작에서 또 한 번 진화했다. 평면의 틀에서 벗어나 화면 안에 리듬감과 율동감을 담았다. '이후 접합' 작업을 통해 하 화백은 보다 여러 가지 색을 쓰게 됐다. 지난 2015년 작업부터 다양한 색이 등장한다. '회화 작가로서 보다 많은 색을 탐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평생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들을 그렸어요. 우리 집사람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 팔려 나갔다. 그러다 새로운 시도를 하면 또 다시 칭찬이 쏟아졌다. '이제 작품을 가져다가 봐. 같이 나오. 나중에 내 흔적과 작품을 모아두고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과 맞서오면 좋겠다'는 걸 배우고 싶어요.” 고승희 기자